

골프장 진입로 '없던 일로'... 함평군 오락가락 행정 논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동함평IC~골프장 진입로 약속 "군비 투입은 특혜" 감사원 지적에 허가조건 슬쩍 삭제

함평군이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내건 조건을 슬그머니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내에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9개 읍면의 주민 여론까지 수용해 골프장 측에 진입도로 개설을 약속했지만, "군비 투입을 특혜하는 것은 특혜"라는 감사원 지적에 실시계획을 변경해 없던 일로 한 것이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는 무시하고 무리하게 함평 관내 고속도로IC로 진입을 유도하다 10여년만에 없던 일로 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을 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D건설이 조성중인 B골프장(160만㎡)은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B골프장 건설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H건설이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냈다. 함평군은 이 과정에서 '골프장 조성 인·허가에 따른 보전임지 조정 등 제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MOU까지 맺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H건설이 기한인 2015년까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자 D건설이 인수해 지난 2019년부터 재추진했다.

D건설도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지난 2021년 3월



지역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함평군과 D건설이 협의한 조건의 핵심은 '진입로를 골프장과 인접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문평IC가 아닌 동함평IC를 통해 개설하겠다'는 것이었다.

문평IC를 통과하는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거리가

짧아 광주 등지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오는 이용객들이 함평을 통과하지 않고 나주 방면으로 들어온다는 분석에서다. 반면 동함평IC를 거치는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함평 시내를 거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27홀 규모의 그린과 숙박시설, 골프빌리지 등이 함께 조성되는 D골프장 이용객들이 함평군을 오가며 식당과 상점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함평군은 D건설과 협의 후 골프장측이 당초 계획한 문평IC 연결도로에 대해 폐쇄하거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안을 포함해 4개의 안까지 마련하고 동함평IC부터 골프장까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수십 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하지만 함평군은 지난 2월 16일 갑자기 골프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해 고시했다.

변경된 고시에는 당초 함평군이 내건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군비를 들여 동함평IC에서 골프장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로개설을 위한 수용절차 등이 늦어지는 와중에 지난해 연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감사원은 함평군이 내건 조건에 대해 "기존 도로가 있음에도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골프장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 담당자는 "문평 IC 진입도로는 방지막이 많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속도를 낼 수 없어 차량들이 빠르게 달릴 수 없다"면서 "결국 동함평IC를 통해 들어오는 차량과 도착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D건설 측도 "함평군에 특혜를 원한 적도 없을 뿐 더러 군과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제동원 피해자 '쥐꼬리 의료비 지원'

지난해 551명 사망... '1년 80만원' 턱없이 부족

일본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숨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지난해에만 5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1월 기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총 1264명으로 지난해 1월 기준 1815명에 비해 551명이 감소했다.

의료지원금은 국외강제동원피해자 중 현재 생존자에게 지난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다. 결국 지원을 받는 피해자 감소는 고령의 나이 등을 이유로 숨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2012년 한해 2160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

가 사망한 이후 지원금을 받는 인원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광주·전남에서 일제강제동원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는 총 150명(광주 34명, 전남 116명)이다.

시민모임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어린 나이에 동원된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제는 90대 중반에 이른 고령인 탓에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보다 실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1년에 한차례 8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의료비를 충당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이국연 시민모임 이사장은 "1년에 80만원은 한달 6만 7000원 꼴로 병원비는 커녕 약값으로도 부족하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우리는 1학년입니다
2일 광주시 동구 장원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걸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원아 모집 못해" 광주 병설유치원 12곳 휴원

광주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2곳이 유아를 모집하지 못해 올해 문을 열지 못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동초병설유치원 등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2곳이 일시 휴원한다. 이들 병설유치원은 2023학년도 유아 모집 결과 공립 유치원 학급 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해 1년 동안 휴원하게 됐다. 이들 유치원은 1학급 5명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광주동초·중앙초·월곡초·치평초유치원 등 4곳은 3년 연속(2021~2023) 휴원하게 됐다. 송학

초·동운초·조봉초·복초 병설유치원 등 4곳은 2년째 휴원한다.

애초 목련초 병설유치원도 휴원대상에 포함됐으나 신입생 5명을 모집해 문을 열게 됐다.

병설 유치원은 출생률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7년 1만120명이었던 광주 신생아 숫자는 2019년 8364명, 2020년 7318명, 2021년 7056명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4곳, 2022학년도 9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169명 사상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69명의 어린이(12세 이하)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017~2021년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사상자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가 91명이 부상당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사상자는 광주 66명, 전남 6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대다수가 저학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1학년 사상자가 27.3%(18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학년 24.2%(16명), 3학년 9.1%(6명) 등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상자 비율도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남 또한 1학년 39.1%(27명), 2학년 31.9%(22명) 등 저학년이 사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방과후 시간인 오후 2시~6시 사이에 집중

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는 전체 사고의 38.7%인 36명이 이 시간대에 사고를 당했으며, 전남 또한 전체 사상자의 56.6%인 43명이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승용차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 71명(76.3%), 전남 64명(84.2%)이 승용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사고 사상자가 광주 13명(14%), 전남 6명(7%)으로 뒤를 이었다.

김경석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어린이 야외활동이 많고, 오전 대비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절찬 판매중

이방인
이 기원 소하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